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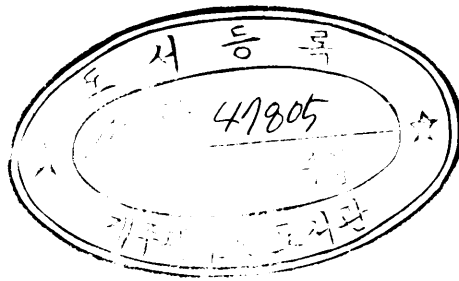
17
5987
11662

碩士學位論文

‘즈냥’정신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 분석

- 제주시 중·고등학생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正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宋蓮心

1999年 2月

‘족냥’정신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 분석

- 제주시 중·고등학생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正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11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提出者 宋蓮心

宋蓮心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12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조남’정신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 분석

宋 蓮 心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家政敎育專攻

指導敎授 金正淑

이 연구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남정신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제주도의 조남 생활에 대한 교훈을 계승·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소비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51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빈도, 백분율, t-test 등의 분석방법이 이용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남의 개념에 대하여 어머니는 83.6%가 절약·검소·아껴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녀는 95.1%가 절약·검소·아껴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어머니는 62.9% 정도가 조남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녀는 29.6% 정도만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조남하는 생활의 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49.8%가 자주 배웠다고 하였으나 자녀는 28.9% 정도만이 자주 배웠다고 하였다. 배우지 않은 경우는 어머니는 12.8%였으나 자녀는 27.2%였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와 자녀의 조남 행동 정도는 대부분의 요인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행동 수준이 자녀보다 높았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이 논문은 199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다섯째, 존낭하는 생활태도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는 모두 존낭하는 생활태도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평생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검소한 생활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존낭하는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녀보다 어머니가 존낭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존낭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 자녀 간에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녀보다 어머니가 존낭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즙낭정신의 이해	4
1. 즙낭의 개념	4
2. 즙낭정신의 체계와 기능	6
3. 즙낭정신의 양상	9
4. 현대사회와 즙낭정신	12
5.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13
III. 연구 방법	16
1. 연구문제	16
2. 조사도구	16
3. 자료 수집	17
4. 자료의 분석	1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9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2. 즙낭의 개념에 대한 인식	20
3. 즙낭하는 생활을 교육받은 경험	23
4. 어머니와 자녀의 즙낭행동 정도	24
5. 즙낭정신의 교육에 대한 인식	26
6. 즙낭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9
7. 즙낭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	32

8. 즈냥행동의 지도 정도	34
V. 결론 및 제언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2
부 록	44

표 차 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즈냥의 개념에 대한 인식	21
<표 3> 즈냥정신 이해도	22
<표 4> 즈냥하는 생활을 교육받은 경험	23
<표 5> 어머니와 자녀의 즈냥 행동 정도	25
<표 6> 즈냥정신의 교육에 대한 인식	28
<표 7> 즈냥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0
<표 8> 즈냥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	32
<표 9> 즈냥행동의 지도 정도	36

그 립 차 례

<그림 1> 즈냥정신의 체계	7
-----------------------	---

I. 서 론

제주도는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삼재의 섬으로 알려질 정도로 돌과 바람이 많고 토지는 척박하여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수 천년 동안 한반도로부터 고립되어 독자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해 왔으며, 해마다 풍수해의 피해를 입었고 흉년이 자주 들어서 생존하기에 매우 어려운 버림받은 섬이었다.¹⁾ 제주인들은 이러한 숙명적인 환경조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극도로 소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1개월 이상 먹을 식량을 비축해 놓았다. 아주 절약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조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조낭정신의 표현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타지방 출신들이 돈이 생기면 잘 먹고 쓰다가 돈이 떨어져서 찢찢매는 것을 볼 때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제주인의 생활에서 절약성은 타고난 생활 신조이다. 재난을 입어도 제주는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다. 이러한 절약 정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저력이 되었으며 생활기반이 되었다. 제주인들의 이러한 절약 정신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개인 생활에서 실천하는 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아울러 소득의 증가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팽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인한 산업화는 우리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함과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물자의 대량생산, 대량 공급, 대량 소비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계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기업·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개 가

1)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정의 경제적 복지는 국민경제의 경제적 안정 및 성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유발된 불로소득의 증대와 소득과 부의 편재로 인하여 근검과 절약보다는 사치와 낭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지나친 과소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화와 과소비로 인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생활은 환경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지나친 소비생활로 인한 자원의 낭비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을 오염·파괴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영원한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물자들을 비롯하여 그 소비 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자원을 새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자원의 유효 적절한 개발과 활용은 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 전체의 생존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자원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영원한 소비자로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 간에 생기는 혼란과 충격을 조화시켜 적응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함께 판단 기준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 선인들의 생활에서 생활 철학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존낭정신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계승·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산업화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오늘날의 가정 생활에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풍요로운 물자속에서 성장 한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물자 낭비를 지양하고 소비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존낭정신은 지나친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상 전래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본받음으로써 바람직한 소비생활 문

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존양정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²⁾은 다소 이루어져 있으나 존양정신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존양정신에 대한 이해도와 개념인식, 존양정신을 교육받은 경험, 존양행동 정도, 존양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존양정신의 지도 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한창영(1982), 「제주도산고」, 제주:한일문화사.

오성찬 외 3인(1987), 「아름다운 제주정신」, 제주도:태화인쇄사.

김인제(1979), “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양중해(1979), “존양 정신에 대한 고찰”, 제주:제주도.

II. 즈낭정신의 이해

1. 즈낭의 개념

제주도 방언에 <즈낭ㅎ다>라는 말이 있다.

절약을 제주에서는 <즈낭>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즈낭>은 구두쇠가 아니다. 소비에 있어서 8할로서 만족하고 이하를 저축하여 두었다가 뒷일에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제주인의 절약정신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장 가까운 개인 생활에서 실천하는 정신인 것이요, 자원난이 일대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는 오늘 이러한 탐라선인의 생활관은 귀중한 의의를 갖는다.³⁾ 이 <즈낭ㅎ다>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단언하여 정리하기란 어렵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물건을 아끼는 일, 저축하는 일, 비축하는 일, 절약하는 일, 소비 또는 낭비를 안 하는 일,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일, 외화내허(外華內虛)가 아니라 외빈내부(外賓內富)의 생활철학 등이 복합적으로 응결된 말이다.⁴⁾ 이 「즈낭한다」라는 말 어간에 정신이란 단어가 결합되어 「즈낭정신」이라는 말이 생겼다.⁵⁾

제주도에는 30여 개의 하천이 북류 또는 남류하며 동서부 지역에서는 하천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하천의 대부분은 강우시 일시에 흘러내리는 이른바 건천이며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은 7~8개이나 이들이 수원은 하구 가까이에 있는 용출수이다.⁶⁾ 토양은 화산토로서 돌이 많고 물이 땅속으로 쉽게 스며드는 핏수 지역의 하나가 되어 물이 귀하여 제주도의 농업적 토지 이용은 전작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토질은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이 낮은 편이었다. 발농사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3) 제주시(1982), 「전통문화의 뿌리」, p.269.

4) 한창영(1979), 「제주도 수상」, 창문각, p.107.

5) 한창영(1990), “탐라인의 정신 그 근간-근검 비축정신”, 「관광제주」 통권63호, 월간관광제주사, p.34.

6) 오홍석(1974), “제주도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잠수를 하고 남자들은 어업에 종사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했다. 또한 제주는 일찍이 三多라 하여 바람 많고(風災多), 물의 피해 많고(水災多), 가뭄 피해가 많은(旱災多) 지방이었다. 이런 지리적 악조건은 필연적으로 겹치는 흉년을 초래하였다. ‘제주의 토질이 뜨고 말라서 밭을 개간하면 반드시 우마를 내몰아 밟아야 하며, 또 그 밭은 2, 3년을 연작하면 이삭이 부실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다시 새 밭을 개간해야 하니 노력은 배로 들되 백성들은 가난을 벗지 못했다.’라고 하였다.⁷⁾ 또한 거의 해마다 몇 차례의 태풍이 휩쓸어 가기 때문에 겨우 가꿔논 곡식을 망치기 일쑤였다.

즈낭정신은 제주인들이 이러한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면서 키워오고 내면화해 온 자립과 근검절약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토지와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온 제주인들은 근면한 노동과 절약하는 소비생활을 중요한 가치 덕목으로 설정해 왔던 것이다.⁸⁾

김상헌⁹⁾이 “백성들은 소박하다.”라고 표현하였듯이 제주인의 의식주는 어느 것 하나 소박하지 않고 비실용적인 것이 없다. 무명에 감물을 들여서 만든 <갈중이>는 작업복이면서 나들이옷으로도 입었으며, 풍·수·해의 세 재해에도 적절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항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소박과 검소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즈낭한다는 말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립정신을 발휘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성과 미래지향성을 지닌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또한 낭비와 허례허영 없이 오직 현실을 바로 보면서 슬기롭고 검허하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¹⁰⁾

즈낭정신은 제주인이 탐라국 시대부터 실천해 온 제주도민 특유의 절약정신으로

7) 오성찬 외 3인(1988), 「아름다운 제주정신」, 제주도, p.31.

8) 김항원 외 3인(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 정신의 정립”, 도승격 50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p.102.

9) 김상헌(1601), 남사록, 선조 34년 9월,

현평효 외 7인(1979), 탐라정신연구 제주대 논문집 11호, p.39에서 재인용.

10) 제주도 교육연구원(1986), 「삼무정신 교육자료집」, 동양인쇄사, p.292.

뒷일을 위하여 일정한 분량을 미리 덜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 다시 말하면 일, 시간, 물건을 보다 값있게 쓰자는 것으로 어려운 생활환경을 직시하면서 자립정신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슬기롭게 지탱해온 삶의 철학¹¹⁾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정신의 상징인 조남 정신은 제주인들에게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과소비와 허례·허식적 생활 습관을 버리고 제주인들이 근검절약을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남정신의 생활화는 조상들의 생활 지침을 현대 사회에서 계승시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생활 철학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을 뜻하며,¹²⁾ 제주사회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¹³⁾고 할 수 있다.

2. 조남정신의 체계와 기능

제주인의 생활을 지탱해온 생활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남정신의 함축성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조남정신의 체계를 구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창영¹⁴⁾은 조남정신의 체계를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으로 대비시켜 6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남정신의 속성에는 자립성이 있다. 조남정신은 자립심과 관계가 된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굳건히 살아가려는 의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조남정신은 자립하는 인간을 형성케 한다. 이 개인적 속성인 자립심이 사회에 투영될 때, 이른바 자립 경제가 나타날 것이 명백해진다.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가운데 선행 조건의 하나가 자립의 의지와 그 실천이다. 자기의 삶을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이상,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계의 한계를 긋고, 자식이 적령이 되어 혼인을 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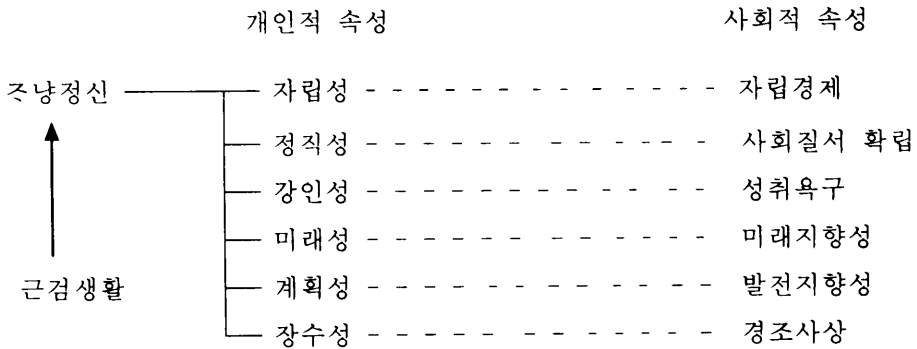
11) 제주도 교육위원회(1986), 「삼무의 일-교육자료 3」, 태화인쇄사, p.33.

12) 김항원 외 3인(1996), 전계서, p.112.

13) 김항원 외 3인(1996), 전계서, p.78.

14) 한창영(1982), 전계서, p.256.

나면 따로 살림을 냈다. 철저히 자립자활의 생활 방식을 습관화 시켰다. 본도 선인들은 설령 그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생활의 필수품인 술, 그릇, 숟갈(숟가락), 항아리 정도가 생활 밑천으로 건네 준 재산목록이다. 그 후에 생활 형편이 펴지고 쭉그러드는 것은 본인들이 노력여하에 달렸으므로 자립에 의한 자수성가의 생계관을 다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생활 기반과 여건은 처음부터 갖추어진 출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급자족으로 윤택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강한 집념과 욕망이 자립의 속담을 형성하고 있다.¹⁵⁾



<그림 1> 존낭정신의 체계

둘째, 존낭정신의 속성에는 정직성이 깃들어 있다고 본다. 존낭하는 데에는 눈치를 보거나 좌고우면 한다거나 제주도 방언인 <주우룩>함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존낭정신을 발휘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 성실해지고 정직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존낭정신에는 인간의 성실화 내지 정직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정직성이 사회로 투영될 때, 질서로 나타나는 법이다.

근면성 없는 성실이 있을 수 없고 성실성 없는 근면이 있을 수 없다. 생계를 위한 활동이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한 처세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비리이므로 철저히 배격했다. 부지런한 공은 하늘도 못 막는다는

15) 고재환, “제주도 속담의 주제”,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75-76.

신념으로 밭일과 바닷일에 사활을 걸고 한 톨의 밥알이라도 더 얻으려고 더운 숨을 몰아 쉬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손이 늘면 입도 논다>고 해서 생산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또 모자란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마의 활용도 컸지만 직접 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말 그대로 오직 부지런한 공으로 산다는 것이 생활 신조가 되고 말았다.¹⁶⁾

셋째, 존양정신의 속성에는 강인성이 있다고 본다. 존양정신은 현실주의적 생활 철학이라 할 수 있다. 허황한 꿈을 갖는다든지 허영에 날뛰는 따위의 생활 태도를 존양정신은 용납하지 않는다. 애오라지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하자는 슬기를 가진 정신이다. 존양정신이란 쉽게 터득되는 것이 아니다. 존양정신을 실천하자면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존양정신을 생활화하다 보면 강인한 의지가 몸에 베이게 된다. 따라서 존양정신은 겸허한 점이 있으며 살려는 강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강인성이 사회로 투영될 때, 그것은 성취 욕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강인은 실리, 근실, 검약, 고충, 자립 등을 응집시킨 본도 선인이 기질의 총화라고 볼 수 있다. 본도 정신의 기저를 근면, 검소, 자립, 강인으로 잡고 있듯이, 그 가운데서도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생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강인성이며 좌절하지 않고 억척같이 생의 심지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인성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말라빠진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기력은 우람한 체력이 못 당할 끈기와 강박함이 다져져 있어, 감히 깔보았다가는 봉변 당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결심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끈덕진 집념을 갖고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력은 놀라운 것이다.¹⁷⁾

넷째, 존양정신은 미래성이 있다. 존양정신은 과거 회고적이거나 현재 안주적인 면 보다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존양이란 말에 저축한다거나 비축한다는 뜻이 있는 것은 미래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 미래성이 사회로 표출될 때, 그 사회는 미래지향성을 띠게 된다.

16) 고재환(1988), 전계논문, pp.69-70.

17) 상계논문, pp.76-77.

다섯째, 존낭정신에는 계획성이 있다. 우리 선인들은 풍흉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거나, 이른바 삼재를 예견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슬기를 보여 왔다. 주어진 곡식을 가지고 일일계획, 일월계획, 일년계획, 나아가서 다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존낭정신에는 불의의 재앙을 극복하는 기능이 있으며 가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계획성이 사회로 투영될 때, 그 사회는 발전지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존낭정신에는 장수성의 기능이 있다고 보아진다. 존낭정신을 생활화하면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소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은 장수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 장수성이 사회로 투영될 때, 그 사회는 경조사상이 드높아질 것이다

3. 존낭정신의 양상

제주도의 존낭정신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선인들의 의생활은 검소하였다. 일반 선인들의 생활은 무명옷에 미투리를 넘어설 수가 없었다. 선인들이 소비를 절감하는 한 예로는,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어 썼고, 가죽신을 신었으며, 감물들인 옷을 상용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절약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을 가치로 여겼던 까닭에 외양이나 외모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¹⁸⁾ 제주민의 전래 복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갈중이와 갈적삼은 원래에 무명옷에 풋감의 즙을 짜서 들인 것이다. 이 갈옷의 특징은 질기고, 더러움이 타지 않으며 여름에 시원한 점이 있다. 더러워도 빨아 입으면 곧 마르는 속성도 있었다. 과거 제주의 도민들은 이 옷 한 벌로 사계절을 입었다. 들에 나가서는 가시에 강하고 바다에서는 물에 젖어도 곧 마르는 잇점이 있는 옷이었다. 어느 시대 누가 처음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명옷에 풋감물을 들인 본도(本島) 고유의 갈옷의 등장은 농부들의 최상의 다목적 의복이었으며, 근검·절약을 위해 참으로 잘 개발된 의복이었다.¹⁹⁾ “갈옷”이야말로 노동복으로

18) 김인제(1979), 전계논문, pp.38-39.

19) 오성찬 외 3인(1988), 전계서, 제주도, p.31.

서는 적격이었으며 이 갈옷은 제주도민의 검소성과 근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²⁰⁾ 또한 제주해녀들의 전통 물질옷인 <소중이> 역시 단 한 벌의 옷으로 가리워질 곳을 다 가리우고 몸에 안전을 도모하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옷이었다. 해녀들은 이 한 벌의 소중이와 태왁, 망사리, 빗창으로 제주해협을 정복하여 왔던 것이다.²¹⁾

제주의 과거 식생활은 주식으로 밥과 국이 있었고 간장과 김치, 찌지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 이외에 범벅이나 두루치기 같은 음식은 남자와 똑같이 어찌면 더 많이 노동일을 해야 했던 제주 여성의 생활상을 대변해 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여성들은 새벽에 일어나 조반을 지어 식구들에게 먹이고 밭으로 나갈 때는 점심 차비를 해서 먼저 지고 나가야 했다. 이것은 밭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앞서 서둘러 돌아와서 가족들 저녁을 마련해야 했다. 그 어느 틈에 음식의 맛과 모양을 도모할 수 있었겠는가. 떠먹는 식기의 모양과 먹는 양식도 마찬가지였다. 나무 도고리(함지박)에 퍼 담아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다투어 떠먹었다. 그것은 그대로 생존을 위한 식생활이었다고 할 것이다.²²⁾

제주도 선인들의 검소한 식생활의 예로서는 반찬인 ‘출래’와 ‘쑤다리’를 들 수 있다. ‘출래’는 다른 반찬에 비해 찌맛이 있는 것으로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것을 말하는데 운반하거나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간편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쑤다리’는 밥이 부패하면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발효시킨 후 끓여서 만든 음식이다. 선인들에게 좋은 반찬은 밥 도둑놈이라 생각했었던가, 선인들은 ‘출래’를 즐겨 애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출래’는 답전가와 어울려 앙상블을 이루게 된다. 노동을 하려니 반찬도 간편하고 운반 또는 가지고 다니기 용이해야 했던 것이다.

타작질을 하고 와서 어찌다 주변에 한두 방울 흩어져 있는 곡실 알을 일일이 주어야 했고, 밭고랑에 흘린 밥 알맹이 하나라도 주어 먹지 않았다가는 죄를 짓는다고 호된 나무람을 받았다. 또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 망태를 방안의 벽에 걸어놓고 아무리 흉년의 들어도 넘보지 않았으므로 <씨 도둑은 없다>는 말까지 있고 보면 대비를

20) 한창영(1978), 「제주도 노인 논고」, 한일문화사, p.177.

21) 오성찬 외 3인(1988), 전계서, p.30.

22) 상계서, p.30.

위한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은 참으로 놀라웠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선인들은 주생활에서도 검소했다. 우선 가옥구조가 소박했으며 즈낭정신의 실천도장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고팡(倉庫)”이 가옥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고팡이야말로 제주도 가옥구조의 특색이라 하겠다. 고팡에는 주로 곡식을 저장한다. 고팡에 비축했던 곡식을 밖으로 내칠 때는 무작정 내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즈낭 해 두었던 것으로부터 차례로 내치게 마련이다. 이른바 신입구출(新入舊出)의 순서에 따라 곡식이 밖으로 나간다. 때문에 즈낭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팡에서 내치는 것과 새로 들어가는 곡식 사이의 연수는 비례하여 증가되는 법이다.²³⁾

그리고 선인들의 가옥구조 중에 온돌구조에도 즈낭정신이 깃들여 있다. 제주도 방언에 “맨도롱”하다는 말이 있다. 쓸데없이 우락부락 온돌이 뜨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즈낭정신의 모습이다. 온돌아궁이를 제주도 방언으로 “굴묵”이라 하거니와 온돌 아궁이 쪽에 벽을 설치함으로써 보온 또는 열 관리를 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에너지 절약에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던 것이다.²⁴⁾ 또한 제주도 가옥구조에 풍채(차양 또는 채양)라는 것이 있다.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모양을 비바람 칠 때면 접어 닫아서 비바람을 방어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가옥구조인 「밖거리 모형」이나 「모거리 모형」 등²⁵⁾도 가족 생활의 합리화와 즈낭정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즈낭 정신이 깃들여 있는 민구로서는 허벅, 켜 그리고 남방아를 들 수 있다.²⁶⁾ 허벅은 선인들의 식수 운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 “허벅”에 물을 채우면 그 안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서 선인들이 얼마나 물을 아꼈던가를 알 수 있다. “켜”는 대개 집집마다 있는 것인데 그 “켜” 가운데에도 소형의 “켜”가 있었다. 이런 종류의 켜에는 집안의 귀중품이나 금전이나 금전을 보관하였다. “남방아”는 남방애라고 하는데 이 남방애에서 한 알의 보리쌀이라도, 한 알

23) 한창영(1979), “부를 축적한 전통적 미풍”, 『제주도』 75호, p.69.

24) 윤복자(1979), “가정의 자원관리”,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pp.62-63.

25) 한창영(1978), 전제서, pp.164-165.

26) 상계서, p.168.

의 좁쌀이라도, 한 줌의 가루라도 아끼려고 하는 존당정신을 터득할 수 있었다.

4. 현대사회와 존당정신

사람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의 용도나 자기 개인의 용도를 위하여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면서 살아간다.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경제체제의 변화는 이러한 소비생활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소비를 자극하기도 하였다.²⁷⁾ 또한 이러한 소비생활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이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유한한 자원 사이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문제들이 이미 우리에게 위기의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²⁸⁾

인류는 이제까지 일정량의 자원을 계속 소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후손들이 자원고갈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²⁹⁾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자원의 특성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소량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³⁰⁾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종류의 물적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하게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³¹⁾

한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에 앞서 근검·절약을 통한 노력으로 자원의 고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미

27) 정영숙(1975), “아동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학연구」 제6호, 충북대학교, p.7.

28) 이옥임·이옥주(1985),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p.149.

29) 김형보(1974), “소비절약태도에 부침”, 「소비자보호」 제35호, 한국부인회, pp.14-15.

30) 서병숙·임정빈(1983), 「가정관리학」, 서울: 동명사, p.79.

31) 이길표 외 3인(1986), 「가정자원관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131.

래의 가정경영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물자소비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을 통해서 현명한 소비자로 길러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³²⁾

우리 나라 경제를 살펴보면 소비절약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절박한 때는 없었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 중에는 우선자원확보 문제가 있으며 그밖에 심각한 문제로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 그리고 외채문제와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제각기의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든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사치와 낭비가 풍미하는 사회는 건전한 국민정신을 좀먹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장³³⁾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시키게 된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해서는 직접, 간접적인 행정지휘 측면에서의 국가적인 노력과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여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망국적 사치성 낭비풍조를 생활주변에서 추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약적 소비 태도의 조성은 자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바람직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개인의 절약적인 물자관리 태도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5.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김향원 외 3인³⁴⁾은 제주인의 의식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독립심과 개인주의를 들 수 있고, 둘째로 협동심과 공동체 연대의식을 들 수 있으며, 셋째로 존당 정신, 넷째로 난관극복의 미래지향적 의식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32) 김부연(1986), “어머니의 자녀교육 태도와 청소년의 물자절약 태도와 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33) 문화공보부(1976), “물자절약의 생활화”, 문화공보부, p.45.

34) 김향원 외 3인(1996), 전게서, p.78.

김인호³⁵⁾는 제주인의 가치관으로 존당정신, 근면성, 협동성, 단결력, 상부상조, 강인성, 해외 진출성, 미래지향성, 자조·자립정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성기³⁶⁾는 시집가서 눈 어둡고, 귀 먹고, 말 모르고서 3년씩이나 살라는 교훈은 분깃정신(分家), 수눌음 정신, 존당정신 등으로 발전하였고 이 세 가지 정신은 마침내 “자주자립, 상부상조, 근면절약”의 제주인의 정신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양중해³⁷⁾는 제주정신을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근면과 자조, 검소와 절약, 협동과 상조, 강인과 진취, 순조와 선비기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인제³⁸⁾는 제주정신은 검소한 생활과 절약하는 마음가짐의 생활화라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주도의 척박한 현실을 개척 극복하려는 강인·불굴의 생활의지의 소산으로 현실 긍정의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항원³⁹⁾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주민들은 삼무정신과 존당정신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89.0%가 긍정적 반응을 하였고 5.4%가 부정적 반응을 하여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삼무정신과 존당정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인함과 검소함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긍정적 반응(91.8%)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환⁴⁰⁾은 제주도 속담의 주제라는 연구에서 제주도 속담에는

① 혼돌에 개역 시번 즈베기 시번 호민 집안 망한다.

② 바릇케긴 밥 도둑놈.

③ 보말도 케기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들 속담에도 존당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하였다.

①의 속담은 간식용 음식인 미숫가루나 수제비를 한 달에 세 번 정도만 해서 먹어도 집안이 망한다고 보았다. 보리를 볶아서 만든 미숫가루인 개역과 수제비 정도

35) 김인호(1989), 「돌통시 문화」, 제주: 정신인쇄사, p.169.

36) 진성기(1997), 「남국의 무속」, 서울:형설출판사, pp.31-32.

37) 김인제(1979), 전개논문, p.67.

38) 김인제(1979), 전개논문, p.46.

39) 김항원(1990), 전개논문, p.157.

40) 고재환(1988), 전개논문, p.72.

해 먹었기로서 집안 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끼니 이외로 사용되는 식량은 낭비로 보았던 것이다.

②의 속담은 밥에는 반찬이 따라야 하겠지만 생선 반찬이 있으면 밥을 많이 먹어 버리게 된다. 평상시의 반찬은 푸성귀에 장국으로 족했다.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 굶주릴 때가 허다했다.

③의 속담에서도 식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바닷가에서 나는 고등도 고기반찬이나 다름없는 귀한 음식이라고 함으로써 하잘 것 없는 식품이지만 귀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¹⁾

또한 그는 선인들의 언어 표현을 보면 직선적이며 실천적이며 소박한 인사말이 있는데, “뱃디 감수가?”(밭에 가고 있습니까?), “즈냥해사 산다.”(즈냥하여야 살 수 있다.), “강 뽕 왕 굴라.”(가서 보아가지고 와서 일러다오.) 등과 같은 이러한 언어 표현에서 선인들이 될 수 있는 한 말을 직선적이고 간결하며 소박하게 표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근면해야 했고 노동의 모든 능력을 투입하다보니 한가하게 장황설을 늘어놓을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말은 간단했었던 것이고 언어 생활에서도 즈냥정신을 발휘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였다.

41) 고재환(1988), 전계논문, pp.70~72.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자녀와 어머니의 즙낭정신에 대한 인식과 교육실태를 분석하여, 제주도의 즙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청소년들이 건전한 소비 생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즙낭정신에 대한 자녀와 어머니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즙낭정신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자녀와 어머니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즙낭행동 정도에 있어서 자녀와 어머니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즙낭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와 어머니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즙낭행동의 지도 정도는 어머니와 자녀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이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예비조사와 선행 연구⁴²⁾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용과 자녀용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용은 즙낭정신의 개념, 즙낭정신의 이해도, 즙낭행동정도, 즙낭하는 생활태도를 교육받은 정도, 즙낭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 즙낭정신의 필요성, 즙낭생활의 교육에 대한 인식, 즙낭행동의 지도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용은 자녀용의 내용외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42) 김부연(1986), 전개논문, pp.55~63.

한창영(1982), 전개서, pp.237~279.

성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조양행동 정도는 예비조사에서 조양행동의 실천 사례를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와 김부연⁴³⁾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조양행동 지도 정도는 조양행동에 관한 24문항에 대하여 어머니의 경우는 현재 지도하고 있는 정도를, 자녀의 경우는 앞으로 자녀에게 어느 정도 지도할 것인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조양하는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7문항씩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양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에 관하여 각각 7문항씩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제주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2학년 남·여학생과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용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기입하게 하여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용 설문지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기입하도록 한 후 다음날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56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하기 곤란한 55부를 제외하고 510부를 조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3) 김부연(1986), 전개논문, pp.55~63.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양정신 이해도, 조양의 개념에 대한 인식, 조양정신 교육경험, 조양정신의 교육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조양행동 정도, 조양생활의 필요성과 조양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 조양행동 지도 정도 등에 있어서 자녀와 어머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도 백분율		변 수		빈도 백분율	
학 교	중학교	277	54.3	성 별	남	230	45.1
	고등학교	233	45.7		여	280	54.9
부 연 령	40세 미만	16	3.1	모 연 령	40세 미만	114	22.4
	40~45세	191	37.5		40~45세	226	44.5
	45~50세	196	38.4		45~50세	131	25.8
	50세 이상	107	21.0		50세 이상	37	7.3
부 학 력	초 졸	12	2.4	모 학 력	초 졸	44	8.7
	중 졸	67	13.2		중 졸	136	27.0
	고 졸	266	52.3		고 졸	264	52.5
	전문대졸이상	164	32.1		전문대졸 이상	59	11.7
소 득 수 준	100만원 미만	87	17.0	부 직 업	전문기술직	75	15.1
	100~150만원	156	30.6		판매·서비스직	112	22.6
	150~200만원	153	30.0		생산·단순노무자	106	21.4
	200~300만원	84	16.5		행정·관리·사무직	155	31.4
	300만원 이상	30	5.9		농업·어업	47	9.5
주 거 소 유	자가	406	79.8	주 거 형 태	단독주택	18	3.5
	전세	60	11.8		아파트	207	40.6
	월세·사글세	30	5.9		연립주택 및 빌라	162	31.8
	기타	14	2.5		상업용 건물내 주택	123	24.1
계						510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조사 대상자의 학교별 분포는 중학생이 54.3%, 고등학생이 45.7%이었으며, 성별은 남학생이 45.1%, 여학생이 54.9%이었다.

부의 연령을 보면 45~50세가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45세로 37.5%이었으며, 50세 이상은 21.0%, 40세 미만은 3.1%였다. 모의 연령은 40~45세가 44.5%로 가장 많았고, 45~50세가 25.8%, 40세 미만은 22.4%, 50세 이상은 7.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의 경우는 고졸이 5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32.1%, 중졸이 13.2%, 초졸 이하가 2.4% 인 것으로 나타났고, 모의 학력은 고졸이 52.5%로 가장 많았고, 중졸은 27.0%, 전문대졸 이상은 11.7%, 초졸 이하는 8.7%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모의 교육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은 행정·관리·사무직이 31.4%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은 22.6%, 생산·단순 노무자는 21.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농·어업은 9.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 기술직은 15.1%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150만원 미만이 30.6%, 150~200만원 미만이 30.0%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6.5%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은 17%, 300만원 이상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의 소유형태는 자가 7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가 11.8%, 월세·사글세가 5.9%, 기타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형태는 아파트가 40.6%, 연립주택 및 빌라가 31.8%, 상업용 건물 내 주택은 24.1%, 단독 주택은 3.5% 순으로 나타났다.

2. 즙양의 개념에 대한 인식

<표 2>는 즙양한다는 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한 개방형의 질문에 대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응답한 결과를 분류·정리한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존양정신에 대하여 어머니와 자녀는 모두 절약하는 것이라는 경우가 각각 38.3%와 4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는 절약·검소·아껴 쓴다가 24.6%, 아껴 쓴다가 2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아껴 쓴다가 23.9%, 절약·검소·아껴 쓴다가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존양의 개념에 대한 인식

어머니			자녀		
존양의 개념	빈도	백분율	존양의 개념	빈도	백분율
절약한다	168	38.3	절약한다	223	48.4
절약·검소·아껴 쓴다	108	24.6	아껴 쓴다	110	23.9
아껴 쓴다	91	20.7	절약·검소·아껴 쓴다	105	22.8
미래를 생각, 아껴 쓴다(저축한다)	39	8.8	아껴서 저축한다	14	3.0
근검절약정신으로 서로 돕는다	16	3.7	최소한의 재화를 최대로 활용	5	1.1
아껴 쓰고 오래 보관 사용한다	9	2.1	검소하게 생활하는 정신	3	0.6
검소하고 합리적인 생활	8	1.8	소중하게 다루고 아낀다	1	0.2
계	439	100.0	계	461	100.0

주) 개방형의 질문으로 무응답이 많았다.(어머니 71명, 자녀 49명)

어머니는 83.6%가 절약하고 검소하고 아껴 쓰는 것으로 존양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경우는 95.1%가 절약하고 검소하고 아껴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인식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어머니의 경우는 미래를 생각하여 아껴 쓴다(저축한다)가 약 8.8%이었으며 근검절약 정신으로 서로 돕는다가 3.7%, 아껴 쓰고 오래 보관(사용)한다가 2.1%, 검소하고 합리적인 생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로서 1.8% 정도였다. 자녀의 경우는 아껴서 저축한다가 약 3.0%였으며 그 외의 최소한의 재화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 검소하게 생활하는 정신, 소중하게 다루고 아낀다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영⁴⁴⁾은 즈낭 정신의 개념을 물건을 아끼는 일, 저축하는 일, 절약하는 일, 소비 또는 낭비를 안 하는 일,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주도 교육 연구원⁴⁵⁾에서는 즈낭정신은 과소비와 허례·허식적 생활 습관을 버리고 제주인들의 근검절약을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자녀와 어머니가 즈낭정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즈낭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즈낭정신의 이해도

즈낭정신의 이해	어머니		자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잘 알고 있다.	175	34.5	33	6.5
약간 잘 알고 있다.	144	28.4	117	23.1
보통 정도로 알고 있다.	142	28.0	233	46.1
거의 모르고 있다.	19	3.7	84	16.6
전혀 모르고 있다.	27	5.4	39	7.7
계	507	100.0	506	100.0

자녀와 어머니의 즈낭정신 이해도에서는 어머니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34.5%인데 반해 자녀는 6.5%만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약간 잘 알고 있다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28.4%, 자녀는 2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정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머니는 28.0%이었고, 자녀는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46.1%이었다. 어머니는 62.9% 정도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녀는 29.6% 정도만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

44) 한창영(1982), 전제논문, p.34.
 45) 제주도교육연구원(1986), 전제서, p.292.

하는 경우는 어머니는 9.1%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자녀는 24.3%이었다. 자녀가 어머니보다 존낭정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존낭하는 생활을 교육받은 경험

어머니와 자녀의 존낭하는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존낭하는 생활을 교육받은 경험

존낭생활의 교육 경험		어 모 니		자 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 경험	아주 자주 배웠다	130	25.6	36	7.0
	약간 자주 배웠다	123	24.2	111	21.9
	보통으로 배웠다	190	37.4	223	43.9
	거의 배우지 않았다	44	8.7	30	5.9
	전혀 배우지 않았다	21	4.1	108	21.3
계		508	100.0	508	100.0
교 육 자	조부모님으로부터	43	9.7	14	3.8
	부모님으로부터	335	75.6	224	60.5
	유치원 및 학교에서	46	10.4	107	28.9
	신문·TV를 통해서	5	1.1	7	1.9
	기타	14	3.2	18	4.9
계		443	100.0	370	100.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낭하는 생활을 교육받은 경험에 있어서 어머니 세대는 아주 자주 배웠다가 25.6%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자녀는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간 자주 배웠다는 어머니가 24.2%였고 자녀는 21.9%였으며 보통으로 배웠다는 경우는 어머니 37.4%, 자녀 43.9%로 자녀가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거의 배우지 않았다고와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경우는 어머니는 12.8% 정도 였으나, 자녀는 27.2%인 것으로 나타나 약 1/3정도가 즙낭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세대에 비하여 자녀들 세대가 즙낭하는 생활에 대하여 교육 받은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즙낭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즙낭하는 생활 태도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즙낭하는 생활 태도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경우가 어머니는 75.6%이었고, 자녀는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즙낭하는 생활태도를 가장 많이 체험하고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즙낭하는 생활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받았다는 경우는 어머니는 10.4%, 자녀는 28.9%로 나타났다.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경우가 어머니는 9.7%가 조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자녀는 3.8%만이 조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 세대는 확대가족 구조에서 조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자녀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조부모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김부연⁴⁶⁾의 청소년들에게 물자소비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현명한 소비자자로 기르는데 부모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시된다는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그 외에 신문·TV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와 자녀의 즙낭행동 정도

자녀와 어머니의 즙낭행동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46) 김부연(1986), 전개논문, p.3.

<표 5> 어머니와 자녀의 존낭 행동 정도

존낭 행동	어머니		자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건 관리와 아껴 쓰기	4.59	.65	3.66	.87	19.32***
공공물건 소중하게 사용	4.23	.85	3.51	.84	13.51***
전원 플러그 뽑기	3.48	1.28	3.18	1.31	3.72***
전화통화 간단히 하기	3.89	1.04	3.20	1.25	9.51***
수돗물 잘 잠그기	4.74	.66	4.63	.70	2.59**
전기, 휴지 아껴 쓰기	4.37	.82	3.46	.92	16.48***
재활용품 활용하기	3.84	1.05	3.10	1.16	10.56***
잃은 물건 찾기	4.22	.91	3.70	1.09	8.21***
가까운 곳 걸어서 다니기	4.17	1.03	4.28	.93	-1.67
옷 기워 입기	3.42	1.27	2.89	1.34	6.52***
옷 재활용하기	3.82	1.09	3.07	1.21	10.27***
음식 남기지 않기	4.19	.90	3.80	1.07	6.24***
남은 음식 보관	4.35	.84	3.62	1.03	12.36***
세제류 아껴 쓰기	4.25	.85	3.29	.99	16.37***
세탁물 모아서 세탁하기	4.43	.87	3.91	1.16	8.03***
사용하지 않는 물건 보관	4.41	.83	3.76	1.07	10.65***
일회용품 사용 절제	4.10	.96	3.32	1.02	12.56***
있는 물건 구입 않기	4.17	1.00	3.35	1.08	10.90***
싸고 질 좋은 제품구매	4.54	.76	3.90	.96	10.90***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	4.33	.83	3.47	.98	14.83***
작은 물건 소중히 사용하기	4.45	.79	3.52	.93	15.34***
쓰레기 분리 수거·재활용품 수집	4.06	.98	3.14	1.10	13.82***
쓰레기 줄이기	4.32	.84	3.37	1.01	16.12***
돈 아껴 쓰고 절약하기	4.61	.66	3.75	1.11	15.00***
계	110.40	12.53	85.20	12.34	19.57***

주) *p<.05 **p<.01 ***p<.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와 자녀의 존낭행동은 가까운 거리는 가능하면 걸어서 다니는 것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그 이외의 모든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대중 교통수단의 발달과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어머니의 존낭행동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자녀보다 모든 요인에서 존낭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건관리와 아껴 쓰기, 전기·휴지 아껴 쓰기, 잃은 물건 찾기, 옷 기워 입기, 세제류 아껴 쓰기, 일회용품 사용 절제, 있는 물건 구입 않기,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 작은 물건 소중히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품 수집, 쓰레기 줄이기, 돈 아껴 쓰고 절약하기 등에 있어서 모두 어머니의 행동 정도가 자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원이 풍부한 생활속에서 존낭하는 생활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자원 절약을 환경 문제와 자원의 제한성과 관련시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원 플러그 뽑기, 전화 통화 간단히 하기, 재활용품 활용하기, 옷 기워 입기, 옷 재활용하기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존낭행동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산업화로 인하여 전기, 전화, 옷 등과 같은 물자가 풍부해지고 보편화되면서 이들 요인에 대해서는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인식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수돗물 잘 잠그기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존낭행동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 모두 수돗물을 사용한 후 잠그는 것은 실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존낭정신의 교육에 대한 인식

자녀와 어머니의 존양하는 생활태도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존양하는 생활태도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육의 시작시기는 어릴 때일수록 좋다는 반응이 어머니는 80.4%였고, 자녀는 77.0% 이었으며, 유치원 입학 후부터가 좋다는 경우는 각각 11.6%, 12.0%로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어머니의 대부분이 존양하는 생활 태도의 교육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존양하는 생활태도를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수시로 계속해서 시켜야 한다는 경우와 초등학교 때가 각각 28.8%, 27.8%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 때가 21.4%였다. 자녀는 초등학교 때가 바람직하다는 경우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때가 24.1%였고, 수시로 계속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경우가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입학 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어머니는 14.3%였고, 자녀는 11.0%이었다. 존양하는 생활태도의 집중적 교육시기로서 어머니는 수시로 계속해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자녀에 비하여 높았으나, 자녀는 수시로 계속해서 교육시키기보다는 초등학교 때에 집중적으로 존양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어머니에 비해서 높았다. 존양하는 생활 태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대부분이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존양하는 생활 태도의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83.3%, 자녀의 77.8%가 평생동안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존양하는 생활 태도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과적인 교육 장소로서는 가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어머니는 82.9%, 자녀는 7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머니가 8.4% 자녀는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어머니의 대부분이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 교육기관보다 존양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6> 존낭정신의 교육에 대한 인식

존낭정신의 교육		어머니		자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 시작 시기	유치원 입학 전	409	80.4	391	77.0
	유치원 입학 후	59	11.6	62	12.0
	기 타	41	8.0	55	10.9
	계	509	100.0	508	100.0
집중적 교육시기	유치원 입학 전	72	14.3	56	11.0
	유치원 때	108	21.5	123	24.1
	초등학교 때	140	27.8	156	30.6
	수시로 계속해서	145	28.8	109	21.4
	기 타	38	7.6	66	12.9
	계	503	100.0	510	100.0
교육기간	초등학교 때까지	17	3.4	11	2.2
	중학교 때까지	13	2.5	25	4.9
	고등학교 때까지	25	4.9	49	9.6
	평생동안	425	83.3	397	77.8
	기 타	30	5.8	28	5.5
	계	510	100.0	510	100.0
효과적인 교육장소	가 정	423	82.9	397	77.8
	교육기관	43	8.4	73	14.3
	기 타	31	6.1	35	6.8
	계	497	100.0	505	100.0
교육하는 이유	검소한 생활	227	44.5	165	32.4
	합리적인 소비생활	134	26.3	182	35.7
	물자절약	35	6.9	63	12.4
	향토문화계승	15	2.9	7	1.4
	환경보호	4	0.8	10	2.0
	잘 살기 위하여	50	9.8	30	5.9
	기 타	2	0.4	11	2.2
	계	467	100.0	468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교육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중복 응답을 제외하였음.

교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검소한 생활을 위해서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가 26.3%이었으나, 자녀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검소한 생활을 위해서가 3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합리적인 소비생활보다는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녀는 검소한 생활보다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는 잘 살기 위해서 절약하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9.8%, 물자절약을 위해서가 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물자절약을 위해서가 12.4%, 잘 살기 위해서는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물자절약보다는 잘 살기 위하여 절약하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자녀는 잘 살기보다는 물자절약을 위해서 절약하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향토문화 계승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절약생활하는 태도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약하는 생활 태도의 교육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수시로 계속해서 평생동안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검소한 생활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꾸준한 지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향토문화 계승은 물론이고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절약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어머니와 자녀간의 과거·현재·미래에 있어서 절약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과거에 절약하는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자녀간에 향토문화 계승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환경 보호,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중한 물자 절약, 검소한 생활, 보다 나은 생활, 부족한 자원

절약 등의 요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어머니의 의식이 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존양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존양생활의 필요성		어머니		자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거	환경보호	3.05	1.22	2.85	1.18	2.70***
	향토 문화 계승	3.21	1.16	3.11	1.14	1.39
	합리적인 소비생활	4.16	.92	4.01	1.02	2.46*
	소중한 물자절약	4.50	.79	4.28	.99	3.88***
	검소한 생활	4.56	.75	4.44	.89	2.26 *
	보다 나은 생활	4.63	.70	4.40	.87	4.62 ***
	부족한 자원절약	4.51	.84	4.29	1.00	3.81 ***
현재	환경보호	3.61	1.01	3.45	.96	2.51*
	향토문화계승	3.14	1.02	2.73	.93	6.60***
	합리적인 소비생활	4.36	.77	4.21	.85	3.04 ***
	소중한 물자절약	4.37	.76	4.07	.91	5.56 ***
	검소한 생활	4.51	.71	4.12	.95	7.36 ***
	보다나은 생활	4.43	.77	3.90	.99	9.47 ***
	부족한 자원절약	3.68	1.09	3.65	1.00	.55
미래	환경보호	4.25	.89	4.03	.97	3.82 ***
	향토문화계승	3.78	1.04	3.44	1.00	5.28 ***
	합리적인 소비생활	4.57	.66	4.42	.74	3.37 ***
	소중한 물자절약	4.53	.72	4.36	.81	3.67 ***
	검소한 생활	4.63	.63	4.40	.81	4.95 ***
	보다나은 생활	4.55	.68	4.17	.90	7.47 ***
	부족한 자원 절약	1.38	0.03	1.63	0.04	5.27 ***

주) *p<.05 **p<.01 ***p<.001

현재 존양하는 생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원의 절약에 대한 인식

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요인인 향토문화계승, 환경보호,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중한 물자절약, 검소한 생활,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에 있어서 어머니의 의식이 자녀의 의식보다 높았다.

미래에 있어서도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요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는 의식에서만 자녀의 의식이 어머니보다 높았으며 그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모두 어머니 의식이 자녀보다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과거에 있어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존낭생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향토문화 계승에 대한 의식이었으나 현재에는 향토문화계승에 대한 의식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서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는 부족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식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향토문화 계승이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자녀는 보통 수준보다 낮게, 어머니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재와 미래로 오면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 점점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에는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았으나, 물자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 대량 소비로 인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물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족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아주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와 미래에 오면서 점점 낮아져서 미래에 있어서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생산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 앞으로는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식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 다른 요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토문화계승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보다 나은 생활, 검소한 생활, 소중한 물자절약,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존양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모두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어 존양하는 생활이 생활의 향상, 검소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존양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

존양정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속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존양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

존양정신의 속성		어머니		자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속성	자립성	4.30	.73	3.87	.86	8.57 ***
	정직성	4.05	.94	3.61	1.00	7.16 ***
	강인성	4.06	.89	3.63	1.00	7.23 ***
	미래성	4.41	.77	4.02	.99	7.05 ***
	계획성	4.52	.73	4.10	.95	7.88 ***
	장수성	2.89	1.24	2.40	1.10	6.62 ***
사회적 속성	자립경제	4.20	.87	3.84	.92	6.37 ***
	사회질서확립	3.74	.94	3.49	1.04	4.01 ***
	성취욕구	3.58	1.04	3.24	1.05	5.10 ***
	미래지향성	4.02	.93	3.79	1.02	3.63 ***
	발전지향성	4.12	.86	4.04	.90	1.39
	경조사상	3.70	.99	3.80	.93	5.05 ***

주) *p<.05 **p<.01 ***p<.001

존당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개인적 속성인 자립성, 정직성, 강인성, 미래성, 계획성, 장수성에 있어서 모두 어머니와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의식이 자녀의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속성에서는 발전지향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요인인 사회질서 확립, 성취욕구, 미래지향성, 경조사 상에 있어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경제, 사회질서 확립, 성취욕구, 미래지향성에 있어서는 모두 어머니의 의식이 자녀보다 높았으나 경조사 상에서는 자녀의 의식이 어머니보다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존당정신의 개인적 속성에 있어서는 계획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성과 자립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의의 재앙과 불확실에 대비하는 계획성에 대한 인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자립성에 대한 인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속성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자립경제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발전지향성과 미래지향성에 대한 의식이 다른 속성에 대한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경우는 발전지향성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립경제와 미래지향성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적 속성에 대한 의식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사회적 속성에 대한 의식에서는 어머니는 자립경제에 대한 의식이 자녀는 발전지향성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창영의 존당정신 체계에 의하면 자립성이 사회로 표출될 때 자립경제를 이룩하게 되고, 계획성이 사회로 표출될 때 발전지향성을 띄게 되며, 미래성이 사회로 표출될 때 미래지향성을 띄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장수성에 대한 의식은 낮게 나타나 존당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장수하게 된다⁴⁷⁾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조사상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 어느 정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7) 한창영(1982), 전제서, p.256.

8. 존양행동의 지도 정도

존양행동의 지도 정도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존양하는 생활태도를 길러주기 위하여 가정에서 존양행동을 어느 정도로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자녀의 경우는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존양하는 생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존양행동을 어느 정도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간에 존양행동의 지도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부모의 존양행동 지도 정도와 자녀의 존양행동 지도 계획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별로는 물건 관리와 아껴 쓰기, 공공장소 물건 사용, 전원 플러그 뽑기, 전화 간단히 사용하기, 재활용품 활용, 유행 지난 옷 재활용, 음식 남기지 않기, 남은 음식 두었다 먹기, 질 좋은 제품 구입하기, 꼭 필요한 물건 구입,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지도, 있는 물건 사지 않기, 전기·휴지 아껴 쓰기 등에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돗물 잠그기, 잃은 물건 찾기, 걸어서 다니기, 양말, 옷 기워 입기, 세제류 아껴 쓰기, 세탁물 모아하기, 사용하지 않은 물건 잘 보관하기, 1회용품 사용 않기, 작은 물건 소중히 사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돈 아끼고 절약하기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휴지 아껴 쓰기, 옷 재활용하기, 남은 음식 두었다 먹기, 세제 아껴 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남은 음식 두었다 먹기, 있는 물건 사지 않기, 질 좋은 제품 구입, 꼭 필요한 물건 구입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지도 정도가 앞으로의 자녀의 지도 계획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건 관리와 아껴 쓰기, 공공장소 물건사용, 전원 플러그 뽑기, 전화 간단히 사용하기, 수돗물 잠그기, 재활용품 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등에 있어서는 자녀의 지도 계획 수준이 어머니의 현재 지도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양하는 생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하여 어머니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 세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중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자녀세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자원 부족에 대한 준비, 더 나가서는 교육기관에서 물자 낭비가 곧 외화낭비라는 지도와 자원 낭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도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표 9> 존낭행동의 지도 정도

존낭 행동	어머니		자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건 관리와 아껴 쓰기	4.40	.78	4.64	.56	-6.00***
공공장소 물건 사용	4.21	.85	4.51	.70	-6.16***
전원 플러그 뽑기	3.98	1.08	4.31	.88	-5.46***
전화 간단히 하기	4.39	.83	4.02	1.01	6.21***
수돗물 잠그기	4.70	.59	4.74	.55	-.97
전기·휴지 아껴 쓰기	4.64	.64	4.55	.66	2.00*
재활용품 활용	4.10	.91	4.33	.79	-4.41***
잃은 물건 찾기	4.36	.81	4.36	.83	-.11
걸어다니기	4.37	.84	4.46	.81	-1.62
양말·옷 기워 입기	3.57	1.15	3.53	1.14	1.58
옷 재활용	4.07	.96	3.59	1.09	7.42***
음식 남기지 않기	4.53	.72	4.37	.84	3.25***
남은 음식 두었다 먹기	4.41	.78	4.10	.92	5.77***
세제류 아껴 쓰기	4.33	.78	4.31	.81	.33
세탁물 모아하기	4.32	.86	4.25	.90	1.17
사용하지 않는 물건 보관	4.50	.69	4.50	.79	-.06
1회용품 사용 않기	4.19	.86	4.20	.89	-.32
있는 물건 사지 않기	4.46	.72	4.32	.85	2.92**
질 좋은 제품 구입	4.51	.70	4.35	.84	3.42***
꼭 필요한 물건 구입	4.62	.62	4.43	.78	4.31***
작은 물건 소중히 사용	4.56	.68	4.56	.68	-.05
쓰레기분리수거·재활용품 수집	4.17	.90	4.38	.77	-4.05***
쓰레기 줄이기	4.35	.80	4.40	.74	-.98
돈 아끼고 절약하기	4.69	.61	4.64	.69	1.15
계	104.57	11.80	104.24	12.39	.42

주)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즙낭정신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제주도의 즙낭정신 생활에 대한 교훈을 현대에 접목시키는 한편 미래 세대들에게 가치있는 교훈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자녀들의 건전한 소비생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기초 자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즙낭의 개념에 대하여 어머니는 83.6%가 절약·검소·아껴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95.1%가 절약·검소·아껴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절약·검소·아껴 쓴다는 의미로 즙낭정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즙낭정신의 이해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91.9%, 자녀는 75.7%가 즙낭정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즙낭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도 24.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한 경우는 어머니는 28.4%였으나 자녀는 6.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즙낭정신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즙낭하는 생활을 교육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49.8%가 자주 배웠다고 하였으나 자녀는 28.9% 정도만이 자주 배웠다고 하였다, 배우지 않았다고 한 경우는 어머니는 12.8%였고 자녀는 27.2%였다. 한편, 어머니와 자녀 모두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각각 75.6%, 6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즙낭 생활 태도를 가장 많이 체험하고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경우는 어머니는 10.4% 자녀는 28.9%였으며, 어머니는 9.7% 자녀는 3.8%만이 조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셋째, 즙낭행동의 정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자녀간에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행동 정도가 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 관리와 아껴쓰기, 공공물건 소중하게 사용하기, 전원 플러그 뽑기, 전화통화 간단히 하기, 전

기·휴지 아껴쓰기, 재활용품 활용하기, 잃어버린 물건 찾기, 옷 기워 입기, 옷 재활용하기 등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걸어서 다니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원이 풍부한 생활속에서 존량하는 생활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원 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자원의 사용을 환경 문제와 자원의 제한성과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존량정신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존량하는 생활의 교육은 어머니는 80.4%, 자녀는 77.0%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83.3%, 자녀는 77.8%가 평생동안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효과적인 교육장소로는 가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어머니는 82.9%, 자녀는 77.8%였다. 어머니와 자녀는 모두 존량하는 생활태도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평생동안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존량하는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간에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의식수준이 자녀보다 높았다. 부족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존량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과거에는 높았으나 미래에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생산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존량생활이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존량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오면서 점점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물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존량정신의 속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개인적 속성인 자립성, 정직성, 강인성, 미래성, 계획성, 장수성 등에서 모두 어머니와 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보다 어머니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속성에서는 자립경제, 사회질서 확립, 성취 욕구, 미래지향성, 발전지향성, 경조사상 등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보다 어머니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곱째, 어머니가 현재 자녀에게 존냥행동을 지도하는 정도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지도할 계획간에는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 별로 보면 물건 아껴쓰기, 공공장소 물건 사용 지도, 전원 플러그 뽑기, 전화 간단히 하기, 재활용품 활용, 옷 재활용, 음식 남기지 않고 먹기, 질 좋은 제품 구입 교육 지도, 꼭 필요한 물건 구입 지도,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 전기·휴지 아껴쓰기 등의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수돗물 잠그기, 잃은 물건 찾기 지도, 걸어서 다니기 지도, 양말·옷 기워입기 지도, 세제류 아껴쓰기, 세탁물 모아 하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 보관, 일회용품 사용않기 지도, 작은 물건 소중히 사용 지도, 쓰레기 줄이기 지도, 돈 아끼고 절약하기 지도 등의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전통문화로 이어져 온 존냥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 자녀 대부분이 존냥의 개념을 단순히 절약·검소·아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존냥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맞게 존냥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는 24.3%가 존냥정신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7.2%의 자녀가 존냥하는 생활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존냥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존냥하는 생활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존냥생활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원 절약의 필요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자원 절약 문제를 환경보호 문제와 자원 제한성과 관련시켜 교육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존냥하는 생활을 배우고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인호(1989), 「돌통시 문화」, 제주: 정신인쇄사.
- 서병숙·임정빈(1983), 「가정관리학」, 서울: 동명사.
- 오성찬 외 3인(1988), 「아름다운 제주정신」, 제주도:태화인쇄사.
- 이길표 외 3인(1986), 「가정자원관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옥임·이옥주(1985),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 제주도 교육연구원(1986), 「삼무정신 교육자료집」, 동양인쇄사.
- 제주도 교육위원회(1986), 「삼무의 얼-교육자료 3」, 태화인쇄사.
- 제주시(1982), 「전통문화의 뿌리」.
- 진성기(1997), 「남국의 무속」, 서울:형설출판사.
- 한창영(1978), 「제주도 노인 논고」, 한일문화사.
- 한창영(1979), 「제주도 수상」, 창문각.
- 한창영(1982), 「제주도산고」, 제주:한일문화사.

<논문>

- 고재환, “제주도 속담의 주제”,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부연(1986), “어머니의 자녀교육 태도와 청소년의 물자절약 태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제(1979), “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탐라정신 연구 세미나 주제 발표요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항원 외 3인(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 정신의 정립”, 도승격 50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홍석(1974), “제주도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숙(1975), “아동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학연구」 제6호, 충북대학교.

최배영(1994), “조선시대에 문헌을 중심으로 한 가정경제 생활관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평효 외 7인(1979), “탐라정신연구” 제주대 논문집 11호.

<기타문헌>

김상헌(1601), 남사록, 선조 34년 9월.

김형보(1974), “소비절약태도에 부침”, 「소비자보호」 제35호, 한국부인회.

문화공보부(1976), “물자절약의 생활화”, 문화공보부.

양중해(1979), “즈낭 정신에 대한 고찰”, 제주:제주도.

윤복자(1979), “가정의 자원관리”,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한창영(1990), “탐라인의 정신 그 근간-근검 비축정신”, 「관광제주」 통권63호, 월간관광제주사.

한창영(1979), “부를 축적한 전통적 미풍”, 「제주도」 75호.

<Abstract>

**Recognition of Frugal Spirit and Analysis about Educational
State of Frugal Spirit**

Song, Yeon-Sim

Home Econom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Jeo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state of frugal spirit, succeed to frugal spirit of Cheju Island, develop it and provide essential basic material for their children to have the wholesome attitude to consum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 living in Cheju city. The material used in this study is questionnaire papers and the number of them is 510.

SPSS PC^{*} program is used in analyzing the collected papers. The analysis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and t-test, etc, are used.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83.6% of mothers consider the concept of frugality as *Saving, Thriftness* and *Stingness*.. The 95.1% of their children do that.

Second, the 62.9% of mothers think that they know the frugal spirit very well, but only 29.6% of their children do tha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9.

Third, the 49.8% of their mother answered that they had learned frugal spirit very often. The 28.9% of their children do that.

Fourth, as to the frugality degree of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meaningful differences are shown between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e action level of the mothers is higher than that of their children.

Fifth, they think it is desirable to teach frugal spirit in their home all their life from childhood and that frugal spirit is essential in the thrift life and their daily life as a consumer.

Sixth, it is shown that their mother think frugal spirit is more necessary than their children do that.

Seventh, as to recognizing the property of frugal spirit, the meaningful differences are shown between individual property and social property of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recognition level of mothers is higher than that of their children in recognizing the property of frugal spirit.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제주도 존양정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문의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이용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설문지 전체를 못 쓰게 되오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 없이 솔직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송 연 심

<자녀용>

I. 다음은 평소의 물건관리 태도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난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학용품(노트, 스케치북, 필기도구 등)을 잘 관리하고 아껴 쓴다.					
2. 공공장소(공원, 학교 등)의 청소용구, 운동기구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아낀다.					
3.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4. 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 간단하게 통화한다.					
5. 수도물을 사용한 후 물이 흐르지 않도록 꼭 잠근다.					
6. 전기, 수도물, 휴지 등을 아껴 쓴다.					
7. 재활용할 수 있는 것(포장지, 빈 용기, 세탁기 물 등)은 재활용한다.					
8.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노력한다.					
9.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한 걸어 다닌다.					
10. 옷이나 양말 등이 헤어지면 기워서 입는다.					
11. 옷(교복)을 서로 물려 입거나 유행이 지난 옷을 재활용한다.					
12. 식사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					
13. 음식이 남으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먹는다.					
14. 각종 세제류(비누, 샴푸 등)를 아껴 쓴다.					
15.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한다.					
16.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잘 보관해 둔다.					
17.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8. 있는 물건을 다시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19.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20.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21. 작은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쓴다.					
22.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재활용품은 수집한다.					
23. 가능한 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24. 용돈을 아껴 쓰고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 47 -

8. 학생은 현재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존낭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① 아주 잘하고 있다. ② 약간 잘하고 있다. ③ 보통으로 한다.
④ 거의 안하고 있다. ⑤ 전혀 안하고 있다.

9. 존낭하는 생활태도는 어느 곳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 ① 가정 ②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등)
③ 언론기관(신문, 라디오, TV 등) ④ 사회단체(주부클럽, YWCA 등)
⑤ 행정(정부)기관 ⑥ 기업 ⑦ 기타 ()

10. 학생의 존낭하는 생활태도는 부모님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았다고 생각되는지요?

- ① 아주 많이 받았다. ② 약간 많이 받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받지 않았다. ⑤ 전혀 받지 않았다.

11. 학생은 앞으로 자녀에게 가정에서 존낭하는 생활에 대하여 교육할 것인지요?

- ① 아주 자주 교육하겠다. ② 약간 자주 교육하겠다. ③ 보통으로 교육하겠다.
④ 거의 교육하지 않겠다. ⑤ 전혀 교육하지 않겠다.

12. 자녀에게 존낭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1번에서 ① ② ③ 에 답한 학생만 하세요)

- ①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②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③ 물자(자원)절약을 위하여 ④ 제주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⑤ 환경보호를 위해서 ⑥ 보다 잘 살기 위하여
⑦ 물자가 부족하므로 ⑧ 기타()

13. 자녀들에게 존낭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1번에서 ④ ⑤에 답한 학생만 하세요)

- ① 존낭정신을 교육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② 귀찮아서
③ 존낭정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④ 스스로 알아서 할 것 같아
⑤ 학교(유치원)에서 교육시킬 것이므로
⑥ 현대사회에서는 존낭하는 생활이 필요없어서 ⑦ 기타 ()

14. 자녀에게 존낭하는 생활을 가르칠 때, 존낭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지요?

- ① 아주 자주 설명하겠다. ② 약간 자주 설명하겠다. ③ 보통 정도로 설명하겠다.
④ 거의 설명하지 않겠다 ⑤ 전혀 설명하지 않겠다.

15. 자녀의 존낭하는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노력하려는지요?

- ①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다. ② 약간 열심히 노력하겠다.
 ③ 보통 정도로 노력하겠다. ④ 거의 노력하지 않겠다.
 ⑤ 전혀 노력하지 않겠다.

16. 존낭하는 생활의 실천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서술해 주세요.

- ①
 ②
 ③
 ④
 ⑤

17. 존낭정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자립정신이 길러진다.					
2.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성실해진다.					
3.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정직해진다.					
4.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강인한 의지가 생긴다.					
5.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6.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7.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된다.					
8.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9.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					
10.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11.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사회에서 성취 욕구를 달성할 수 있다.					
12.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미래지향적 사회가 될 수 있다.					
13.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사회가 발전지향성을 띠게 된다.					
14.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경조사상이 높아질 수 있다.					

18. 현재 존당하는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2.	향토 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3.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4.	소중한 물자를 절약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5.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6.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7.	부족한 물자를 아끼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19. 앞으로 계속 존당하는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앞으로도 계속 환경보호를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2.	앞으로도 계속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3.	앞으로도 계속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4.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물자를 절약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도 계속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6.	앞으로도 계속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7.	앞으로 모든 물자가 풍부해지더라도 존당하는 생활은 해야 될 것이다.					

20. 앞으로 자녀에게 다음 내용을 어느 정도로 지도할 것인지요?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학용품(노트, 스케치북, 필기도구 등)을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도록 지도하겠다.					
2.	공공장소(공원, 학교 등)의 청소용구, 운동기구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아끼도록 지도하겠다.					
3.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도록 지도하겠다.					
4.	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간단하게 통화하도록 지도하겠다.					
5.	수돗물을 사용한 후 물이 흐르지 않게 잠그도록 지도하겠다.					
6.	전기, 수돗물, 휴지 등을 아껴쓰도록 지도하겠다.					
7.	재활용할 수 있는 것(포장지, 빈 용기, 세탁기 물 등)은 재활용하도록 지도하겠다.					
8.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찾도록 지도하겠다.					
9.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한 걸어서 다니도록 지도하겠다.					
10.	옷이나 양말이 헤어지면 기워서 입도록 지도하겠다.					
11.	옷(교복)을 서로 물려 입거나 유행이 지난 옷을 재활용하도록 지도하겠다.					
12.	식사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도록 지도하겠다.					
13.	음식이 남으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먹도록 지도하겠다.					
14.	각종 세제류(비누, 샴푸 등)를 아껴 쓰도록 지도하겠다.					
15.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도록 지도하겠다.					
16.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잘 보관해 두도록 지도하겠다.					
17.	가능한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18.	있는 물건을 다시 사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19.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지도하겠다.					
20.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도록 지도하겠다.					
21.	작은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도록 지도하겠다.					
22.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재활용품은 수집하도록 지도 하겠다.					
23.	가능한 한 쓰레기를 줄이도록 지도하겠다.					
24.	돈을 아껴 쓰고 절약하도록 지도하겠다.					

21. 과거에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과거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다.					
2.	과거에는 향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다.					
3.	과거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다.					
4.	과거에는 소중한 물자를 절약하기 위하여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다.					
5.	과거에는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다.					
6.	과거에는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다.					
7.	과거에는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아끼기 위해서 즈낭하는 생활을 하였다.					

22. 성별은? ① 남자 (), ② 여자 ()

23. 학교는? ① 중학교 (), ② 고등학교 ()

24. 학생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은?

① 제주시 지역 ② 서귀포시 지역 ③ 읍지역 ④ 면지역

25. 어린 시절의 생활은 주로 어디에서 보냈는지요?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읍지역 ④ 면지역 ⑤ 육지

<어머니용>

1. 다음은 평소의 물건관리 태도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난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가정의 생활용품(TV, 세탁기, 가스렌지 등)을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한다.					
2. 공공 장소(공원, 학교 등)의 청소용구, 운동기구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아낀다.					
3.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4. 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 간단하게 통화한다.					
5. 수도물을 사용한 후 물이 흐르지 않도록 꼭 잠근다.					
6. 전기, 수도물, 휴지 등을 아껴 쓴다.					
7. 재활용할 수 있는 것(포장지, 빈 용기, 세탁기 물 등)은 재활용한다.					
8.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노력한다.					
9.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한 걸어다닌다.					
10. 옷이나 양말 등이 헤어지면 기워서 입는다.					
11. 옷을 물려 입거나 유행이 지난 옷을 재활용한다.					
12. 식사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					
13. 음식이 남으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먹는다.					
14. 각종 세제류(비누, 샴푸 등)를 아껴 쓴다.					
15.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한다.					
16.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잘 보관해 둔다.					
17.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8. 있는 물건을 다시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19.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20.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21. 작은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쓴다.					
22.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재활용품은 수집한다.					
23. 가능한 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24. 돈을 아껴 쓰고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9. 존당하는 생활 태도는 어느 곳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① 가정 ② 교육기관(학교,유치원)
 ③ 언론기관(신문, 라디오, TV 등) ④ 사회단체(주부클럽, YWCA 등)
 ⑤ 행정(정부)기관 ⑥ 기업 ⑦ 기타 ()
10. 귀하의 존당하는 생활 태도는 부모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되는지요?
 ① 아주 많이 받았다. ② 약간 많이 받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받지 않았다. ⑤ 전혀 받지 않았다.
11.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당하는 생활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신지요?
 ① 아주 자주 교육한다. ② 약간 자주 교육하는 편이다. ③ 보통으로 교육한다.
 ④ 거의 교육하지 않는다. ⑤ 전혀 교육하지 않는다.
12. 자녀에게 존당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1번에서 ①②③에 답하신 분만 하세요.)
 ①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②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③ 물자(자원)절약을 위하여 ④ 제주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⑤ 환경보호를 위해서 ⑥ 보다 잘 살기위하여
 ⑦ 물자가 부족하므로 ⑧ 기타()
13. 자녀들에게 존당하는 생활 태도를 교육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1번에서 ④⑤에 답하신 분만 하세요.)
 ① 존당정신을 교육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② 귀찮아서
 ③ 존당 정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④ 스스로 알아서 할 것 같아서
 ⑤ 학교(유치원)에서 교육시킬 것이므로 ⑥ 현대사회에서는 존당하는 생활이 필요없어서
 ⑦ 기타 ()
14. 존당하는 생활을 가르칠 때, 존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요?
 ① 아주 자주 설명한다. ② 약간 자주 설명한다. ③ 보통 정도로 설명한다.
 ④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⑤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15. 자녀에게 존당하는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노력하시는지요?
 ①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 ②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보통으로 노력한다.
 ④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6. 자녀에게 다음 내용을 어느 정도로 지도할 것인지 가장 일치하는 난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정	약	그	거	전
		말	간	저	의	혀
		그	그	그	그	그
		렇	렇	렇	렇	렇
		다	다	다	다	다
1.	학용품(노트, 스케치북, 필기도구 등)을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공공장소(공원, 학교 등)의 청소용구, 운동기구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아끼도록 지도하고 있다.					
3.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도록 지도하고 있다.					
4.	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간단하게 통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5.	수돗물을 사용한 후 물이 흐르지 않게 잠그도록 지도하고 있다.					
6.	전기, 수돗물, 휴지 등을 아껴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7.	재활용할 수 있는 것(포장지, 빈 용기, 세탁기 물 등)은 재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8.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찾도록 지도하고 있다.					
9.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한 걸어서 다니도록 지도하고 있다.					
10.	옷이나 양말이 헤어지면 기워서 입도록 지도하고 있다.					
11.	옷(교복)을 서로 물려 입거나 유행이 지난 옷을 재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12.	식사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도록 지도하고 있다.					
13.	음식이 남으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먹도록 지도하고 있다.					
14.	각종 세제류(비누, 샴푸 등)를 아껴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15.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16.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잘 보관해 두도록 지도하고 있다.					
17.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18.	있는 물건을 다시 사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19.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0.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1.	작은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22.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재활용품은 수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3.	가능한 한 쓰레기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다.					
24.	돈을 아껴 쓰고 절약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17. 존낭하는 생활의 실천 방법을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서술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 ④
- ⑤

18. 존낭정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자립 정신이 길러진다.					
2.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성실해진다.					
3.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정직해진다.					
4.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강인한 의지가 생긴다.					
5.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6.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7.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된다.					
8.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9.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자립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					
10.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11.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사회에서 성취욕구를 달성할 수 있다.					
12.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미래지향적 사회가 될 수 있다.					
13.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사회가 발전지향성을 띠게 된다.					
14.	존낭하는 생활을 하면 경조사상이 높아질 수 있다.					

19. 현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2.	향토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3.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4.	소중한 물자를 절약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5.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6.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7.	물자가 부족하므로 아끼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20. 앞으로도 계속 존당하는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	항	정 말 그렇다	약 간 그렇다	그 저 그렇다	거의 그 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	앞으로도 계속 환경보호를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2.	앞으로도 계속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3.	앞으로도 계속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4.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물자를 절약하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도 계속 검소한 생활을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6.	앞으로도 계속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존당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7.	앞으로 모든 물자가 풍부해지더라도 존당하는 생활은 해야 될 것이다.					

28. 귀하가 거주하는 행정구역은 어디신지요?

- ① 제주시 지역 ② 서귀포 지역 ③ 읍 지역 ④ 면 지역

29. 어린 시절 생활은 주로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읍 지역 ④ 면 지역 ⑤ 육지

30. 본인과 남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내 용	본인	남편
① 전문·기술직 : 의사, 약사, 간호사, 회계사, 판·검사, 교원, 언론인, 연예인, 종교관계종사자, 창작예술가, 체육인 등		
② 판매직·상업 : 도·소매업, 판매 외무원, 보험·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점원, 감정인, 기업서비스 판매원, 경매인, 판매원 등		
③ 생산·단순·노무자 : 운전사, 금속·목재가공 종사자, 재봉공, 제조공, 인쇄공, 전기·전자수리공, 용접공, 장비조작공, 화물취급인 등		
④ 행정·관리·사무직 : 공무원, 회사원, 기업체 중역, 관리직 사원, 사업주, 속기사, 경리출납원 등		
⑤ 서비스직 : 요식·숙박업 관리자, 조리사, 가정부, 건물관리원, 경찰관, 환경미화원, 이발사, 미용사, 소방원, 안내원, 장의사 등		
⑥ 농·어업 : 농업, 어업, 수산업		
⑦ 무직, 주부		

감사합니다.